

노동부, 걸핏하면 규정 따져 지원금 철회

‘사회적기업’ 취지 갈수록 퇴색

광주·전남 84개 운영… 개선 시급

정부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운영중인 ‘사회적기업’ 제도가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영업에 따른 기업수익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철회하는 등 설립취지가 크게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광주 17개, 전남 25개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주 37개, 전남 5개등 모두 84개의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69곳에 불과했으나 올 1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예산이 고용부에서 각 지자체(광주 28억원·전남 39억원)로 이관되면서 인증 기업이 다소 늘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은 취지에 맞춰 수자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한번 인증된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강진의 친환경식품제조업체 ‘콩새미F&B’는 지난 2009년 11월 고용부로부터 친환경 효소 및 과자·음료류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50명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 받아 운영중인 이 회사는 최근 음식제조를 하던 직원의 손 부상을 산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해지 당해 회사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부는 해지 이유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직원이 정식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

또 광주의 예비사회적기업 ‘무들아트컴퍼니’는 지난해 소속 작가가 해외 아트페어와 전시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사회적기업 재심사에서 탈락했다. 지난 2008년 11월 지역문화교류호남제단의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고용부의 인증을 받아 예비사회적기업 활동을 한 무돌아트컴퍼니는 53명의 지역 작가들이 소속된 지역문화단체였다. 하지만 고용부 지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작가들이 해외에 나간 것이 커다. 작가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외전시 참여를 독려했던 이 단체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황당했지만 결국 지원이 끊겨 단체가 해체됐다.

‘콩새미’ 국령애(여·51)대표는 “장애인과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 50여명을 채용해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했지만 매끄럽지 못한 산재 처리 과정에서 ‘고투리’를 잡혀 바로 재심사에서 탈락하고 말았다”며 “행정지도로 끝날 사안을 가지고 터무니

없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한다면 누가 사회적기업 운영자로 나서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과 책무를 빛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용부의 일률적인 심사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바꾸고, 민간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지원센터 및 기업연계 프로그램 등 시설과 제도를 확충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자리창출사업의 예산이 자자체에서 집행되는 만큼 자자체가 나서서 기존기업의 내실화 등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기차 충전해보세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1 국제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및 전기설비전에서 해외 바이어가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입 감소 무역수지는 흑자

광주·전남 4월 무역동향… 원유 수입량 20% 줄어

광주·전남 지역의 4월중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들었지만 무역수지는 한달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18일 광주본부세관이 분석한 ‘2011년 4월 광주·전남 무역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달보다 6.5% 감소한 45억2700만달러, 수입은 9.6% 감소한 43억8100만달러로 무역수지 1억4600만달러를 기록해 한달만에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주요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에도 전남의 주요 수입 물품인 원유의 수입량이 전달보다 20%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품목별로는 수출부문에선 선박(-21.3%), 철강제품(-9.9%), 화공품(-7.0%) 등이 줄고 석유제품(9.2%)이 증가했으며, 수입부문에서는 원유(-11.8%), 철광(-12.7%) 등이 줄고 전기·전자기기(58%)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수출은 수송장

비(-12.0%), 반도체(-14.9%) 등 주요 품목의 감소에 따라 전달보다 11.9% 감소한 8억6000만달러, 수입은 원유(-11.8%), 철광(-12.7%) 등의 감소 3% 증가한 4억94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수출은 대동남아, 중국 세 영향으로 전달보다 11% 감소한 38억8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주 남평배추 338t 홍콩·싱가포르 수출

최근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폭락한 봄배추를 홍콩과 싱가포르로 수출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 18일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최근 공급 과정으로 값 폭락 등 수급불안이 심화된 나주 남평 봄배추 338t를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 수출키로 했다.

최근 홍콩 등의 바이어를 나주 남평 상록영농조합 현장에 초청해 수출 상

담을 벌인 결과, 오는 21일부터 이를 통한 봄배추를 홍콩과 싱가포르로 수출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 판매는 김경철(주)인포마스터(대표 김경철)에 위탁해 운영하는 광주기업주치의센터는 기술·경영·금융 분야 등 13명의 전문 주치의가 상주하면서 광주 광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종합적인 성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기업의 성장 아이템을 발굴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벌이는 한편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정책연계 서비스도 한다. 센터는 주관기관인 인포마스터뿐만 아니라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등도 참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업주치의센터 개원 광주산단

‘광주국가산업단지 기업주치의센터’가 1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첨단단 내 광주디자인센터에서 개소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초대 센터장에는 김영진 전 광주혁신클러스터 추진단장이 선임됐다.

지식경제부가 (주)인포마스터(대표 김경철)에 위탁해 운영하는 광주기업주치의센터는 기술·경영·금융 분야 등 13명의 전문 주치의가 상주하면서 광주 광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종합적인 성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양도세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4만 3000여명에 안내문 발송

기한 내 확정신고 않으면 20% 가산세

국세청은 ‘2010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4만3000여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해 대상자(23만 8000여명)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

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양도소득세 분납 신청자가 분납기한(7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내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면 지방소득세는 분납제도가 없으므로 이달 31일까지 지방소득세 전액(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nts.go.kr)나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건설협회 대표회원 75명 선출

대표이사 등이 각각 선출됐다. 또 대표회원은 북부권 18명, 중부권 16명, 서부권 16명, 동부권 25명 등 총 75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전남도회 전체회원(627개사)의 의사·의결권을 위임받아 총회를 구성하며, 특히 내년 6월 전남도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2135.78 (+33.37)
코스닥지수	498.94 (-2.78)
금리(국고채 3년)	3.62% (+0.00)
원·달러 환율	1087.90원 (-0.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농업인 구합니다!

도시근교 농장에 숙식을 하며
농사일을 할 분을 찾습니다!

모집인원 0명

근무일수 주 1회 휴무(평일)

근무조건

숙식가능자, 농사일 유경험자 우대

경운기 작동 가능자

근무장소 전남 화순군 앵남리

급여 면접 후 결정

접수방법 팩스접수 / 방문접수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본 1통

연락처 062)651-8871

010-3763-7335

FAX 062)652-8866

서광타워(주)

‘11 재광진도군 향우회 정기총회

○ 일 시 2011년 5월 28일 15:30 ~ 20:00

○ 장 소 방립초등학교 체육관

○ 대 상 400명(내빈, 향우회원, 초청가수 등)

- 식전행사 : 진도군립 예술단 공연 (복춤, 남도민요)
- 의식행사 - 제1부행사 : 개회식
- 식후행사
 - 제2부행사 : 만찬(현지장소부페)
 - 공연 (연예인 초청 : 박진도)
 - 품바탕
 - 음·면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 행운권 추첨
 - 평회

○ 추진위원 ○

- 재 광 진 도 군 향 우 회 장 한기빈 010-9458-1896
- 수 석 부 회 장 한찬권 010-7156-4363
- 상 임 부 회 장 박성호 010-3601-0989
- 상 임 부 회 장 김정운 010-9862-4708
- 진 도 읍 향 우 회 장 김복남 011-9603-9270
- 고 군 면 향 우 회 장 한진옥 011-9667-8041
- 군 내 면 향 우 회 장 박상진 017-605-5549
- 의 신 면 향 우 회 장 박상열 010-2409-1548
- 임 회 면 향 우 회 장 곽봉일 011-2616-8846
- 지 산 면 향 우 회 장 최정규 010-3468-7741
- 조 도 면 향 우 회 장 김재호 011-609-1779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앞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통기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병영지구

H.P.010-601-5354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 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